

#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1.8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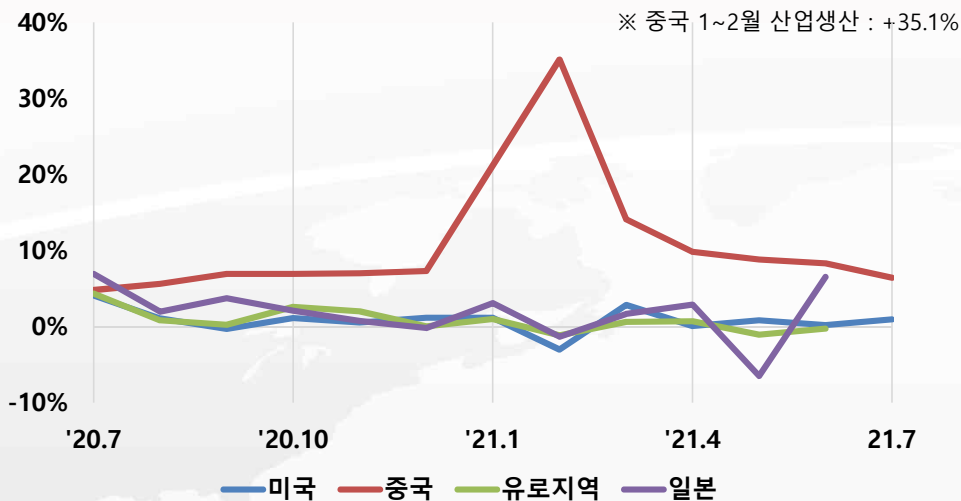


# 세계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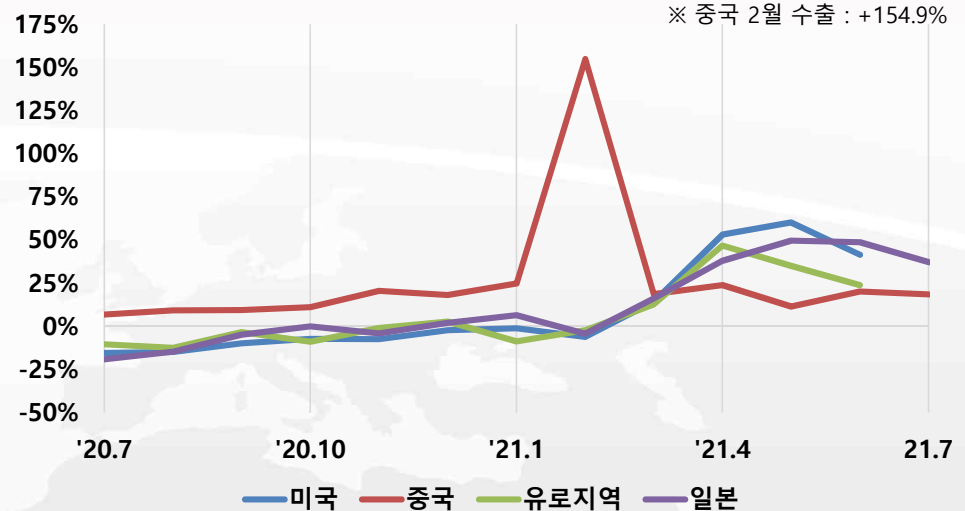
## ■ 주요국 경제동향 : 델타변이 확산 속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

- (미국) 견조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, 업종별로 경기회복세가 차별화되며 2분기 성장률 예상치 하회  
- 7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0.9%)은 5개월 연속 증가했으나, 자동차 등 업종 생산차질로 2분기 성장률(전기대비연율 +6.5%) 예상치(+8.4%) 하회
- (중국) 양호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 및 일부 업종 규제 등 불안요인 상존  
- 2분기 성장률(전년동월대비 +7.9%) 및 7월 산업생산 증가율(전년동월 대비 +6.4%) 기저효과 등으로 하락  
- 한편, 중국정부는 불평등 해소 및 공산당 체제 강화를 위해 대형 IT 및 교육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
- (유로존) 봉쇄조치 해제 등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 증대  
- 2분기 GDP 성장률(+2.0%)이 증가세로 크게 반전하고 소매판매도 2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6월 산업생산 2개월 연속 감소
- (일본)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올림픽 개최에 따른 효과 반감  
- 6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6.5%) 및 소매판매(전월 대비 +3.1%) 상승 반전했으나, 올림픽 기간중 코로나 19 재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경제활동 위축

### 전산업생산지수



### 수출 추이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Bloomberg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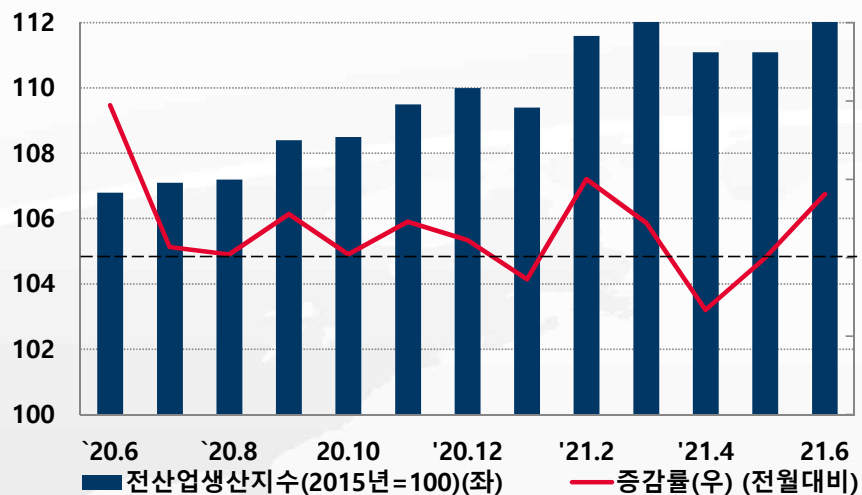
## ■ 산업 활동 : 광공업 및 서비스업 모두 증가세로 반전

- (생산)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, 서비스업, 건설 등이 모두 개선되며 전월대비 1.6% 증가(전년동월대비 +6.7%)
  - (광공업 : +2.2%) : 통신방송장비(△8.9%) 등에서 감소했으나, 반도체(+8.6%) 자동차(+6.4%) 등에서 크게 증가
  - (서비스업 : +1.6%) :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금융보험업(+3.2%), 도소매(+1.6%)가 호조세를 보이며 '20년 6월 이후 최대폭 증가
- (경기) 5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4.4p)는 13개월 연속 상승하며 '99.8월 이후 최장기간 증가세 (기준치 100)

## ■ 수출 동향 : 두 달 연속 15대 품목 증가세 유지하며 역대 월 수출액 1위 달성

- 7월 총수출은 554.4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39.6%)를 기록하며, 4개월 연속 20% 내외 증가율 유지
  - EU(+43.9%), 美(+32.1%), 中(+15.7%) 등 주요국 수출 호조세 속 인도(+56.3%), 아세안(+56.3%), 중남미(+40.5%) 등 신시장도 선전
  - 반도체는 석 달 연속 100억 달러 돌파, 석유제품(+73.0%), 석유화학(+59.5%)은 유가 상승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

### 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### 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#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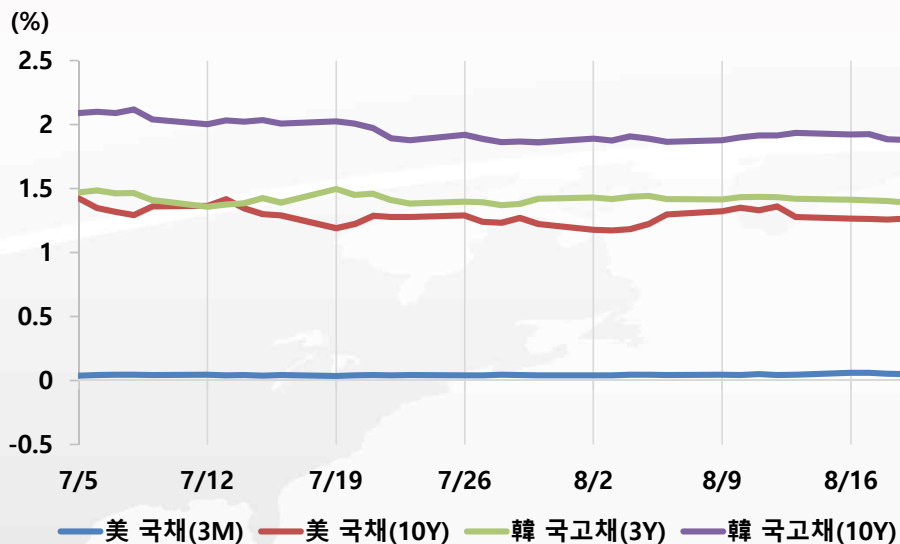
## ■ 금리 :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미연준의 테이퍼링 우려가 상충하며 소폭 등락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으나, 고용시장 지표 개선 등으로 미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확대되며 소폭 상승 반전
- (한국)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코로나 19 재확산,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. 3년물 경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하락폭 제한

## ■ 환율 : 미달러화,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테이퍼링 가능성으로 강세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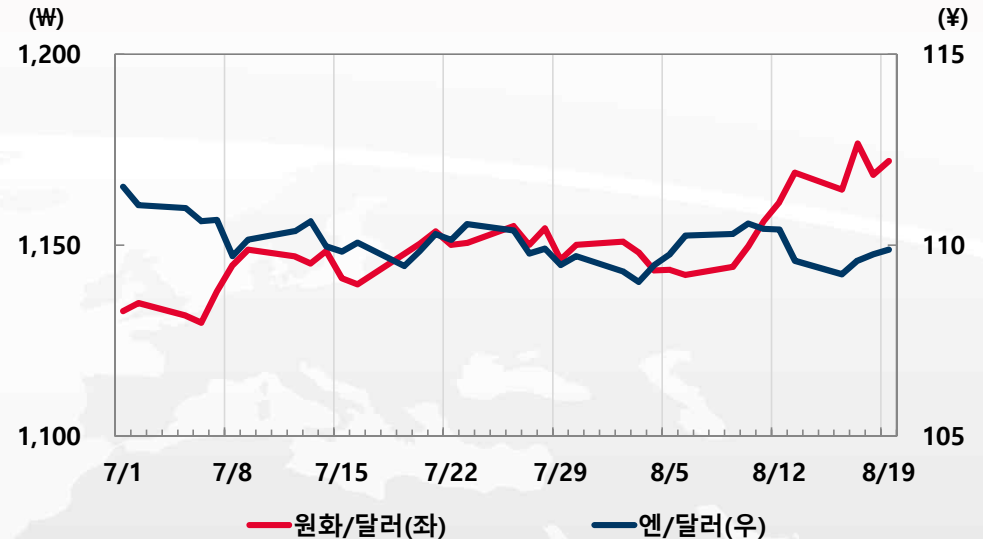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도 불구하고, 하반기 경기전망 불투명 및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세로 '20년 9월 이후 최초로 1,170원/달러 수준 돌파
- (엔/달러 환율) 일본 경기회복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세 유지 및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등으로 보합세 유지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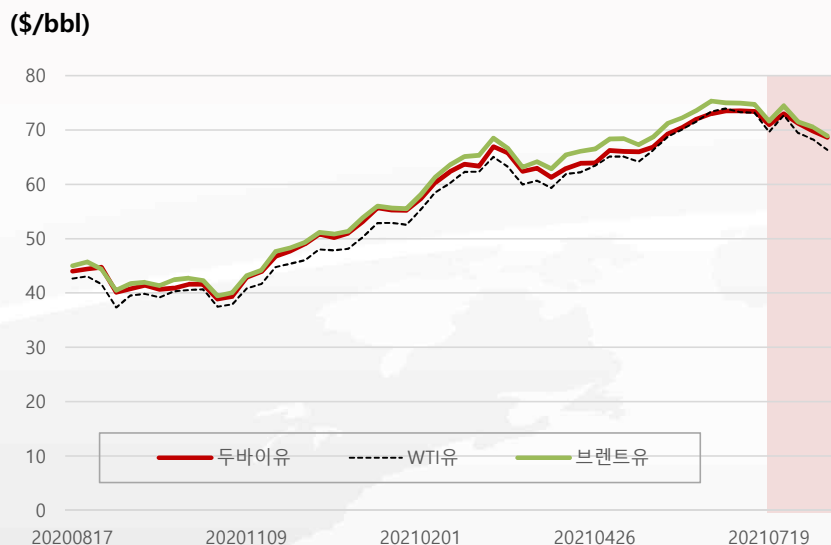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#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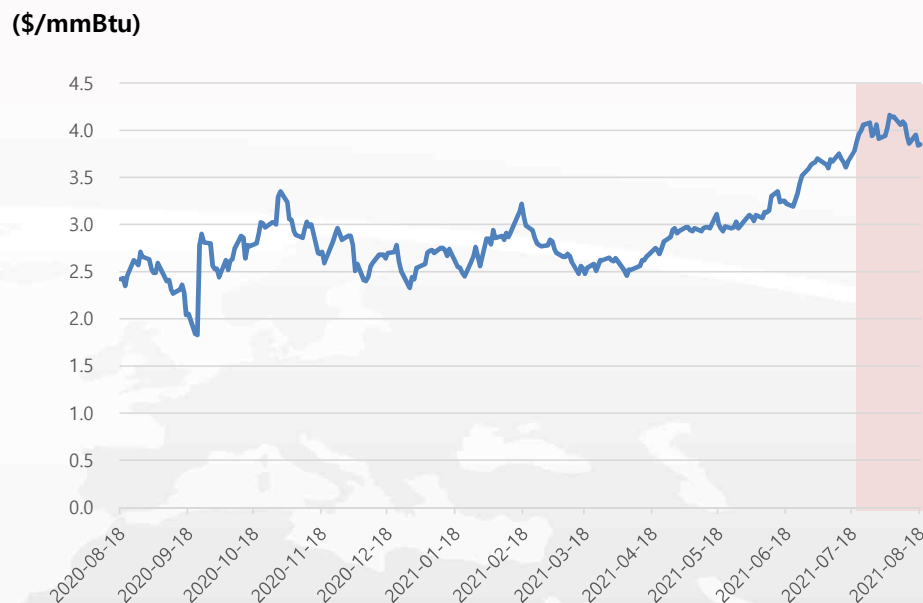
## ■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,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8월중 하락세 전환

- (원유) 7월초 유가는 70달러 중반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이후,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,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 등 수요회복 둔화 우려로 하락하여 8월 중순 60달러 후반대 기록**
  - 미국의 백신접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,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 하락.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등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며 유가 하락에 일조(8.18일, 두바이유 \$68.58/bbl).
- (천연가스) 냉방용 발전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상승하여, 8월초 mmBtu당 4달러대를 돌파한 이후 소폭 하락**
  - 미국의 냉방용 가스발전 수요 급증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8월초 mmBtu당 4달러대 기록(8.4일, NYMEX \$4.16/mmBtu) 이후,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증가, 하반기 생산 증가 전망(EIA)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여 8월 중순 3달러 후반대 기록

### 국제유가 추이



###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## 7월 수주, LNG선 중심으로 양호한 수준 유지

### 7월 시황은 세계 발주량, 한국 수주량 모두 전월에 이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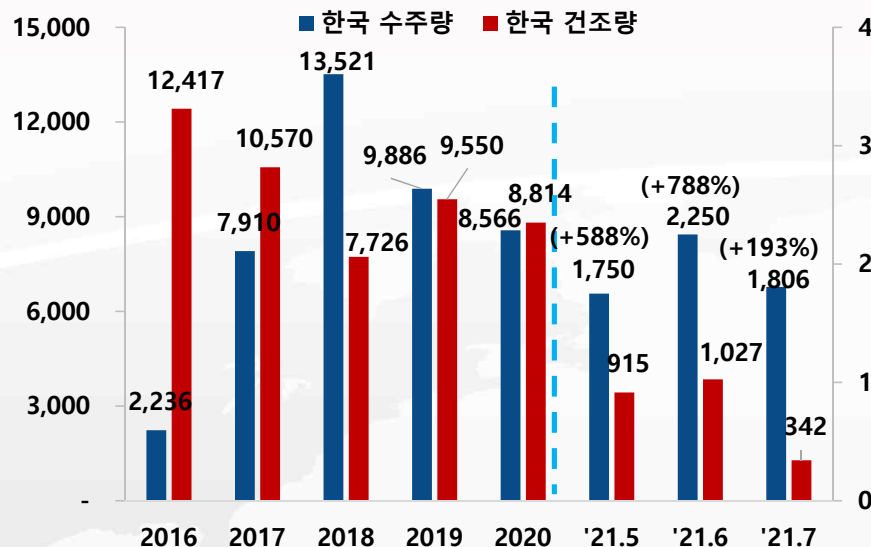
- 7월 세계발주량은 전년동월 대비 297.8% 증가한 401만CGT, 7월 누적치는 전년동기 대비 213.1% 증가한 2,970만CGT
- 7월 한국 수주량은 181만CGT(전년동월 대비 +193.3%), 누적치는 1,276만CGT(전년동기 대비 +549.8%)
- 7월 수주액은 40.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202.2%), 누적 수주액은 318.4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579.5%)
- 7월중 수주량의 94%를 LNG선이 채웠으며 나머지는 소량의 중형 탱커와 컨테이너선 등 중형 선박임

### 7월 선박 수출은 전월에 이어 양호한 생산활동을 유지하며 증가세 유지

- 7월 수출액은 19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9.3%), 누적 수출액은 138.2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19.3%)

## 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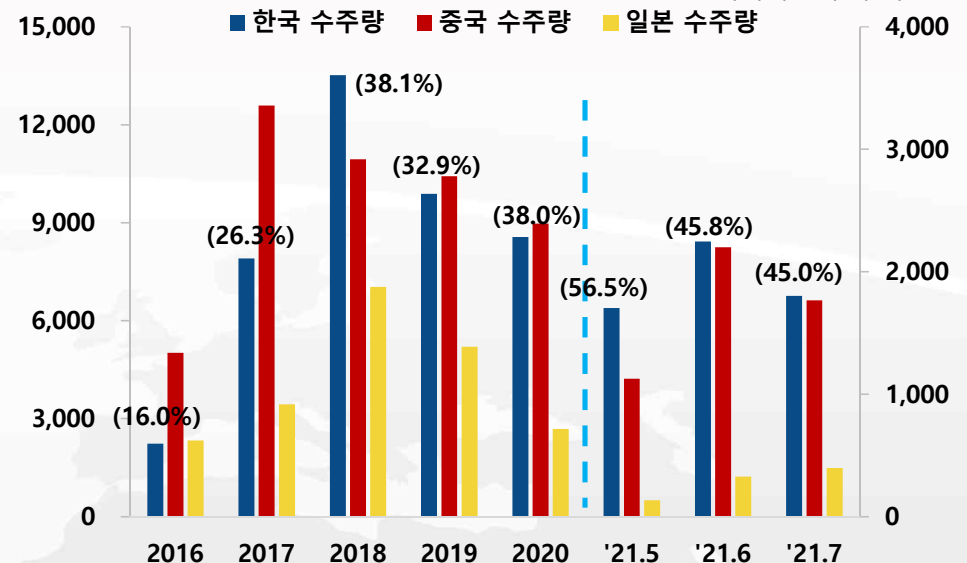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자료 : Clarkson

## 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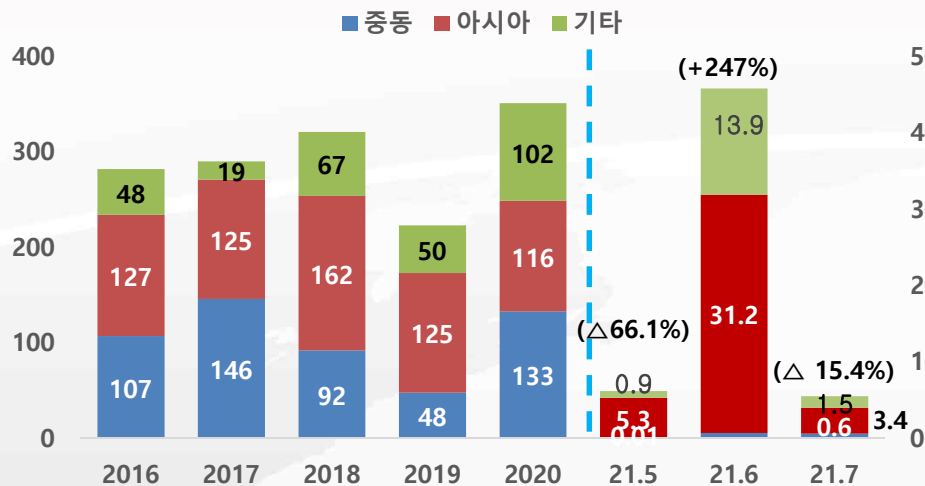
자료 : Clarkson

## 7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15.4% 감소한 5.5억 달러

- (지역별) 중동 수주는 37.5% 감소한 0.6억 달러, 아시아는 3.4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2.8% 감소
  - 중동지역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, 아시아 지역 수주가 크게 증가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147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.6% 감소에 그침
- (공종별) 플랜트 1.3억 달러(전년동월대비 +117%), 토목 0.7억 달러(△53.3%), 건축 3.2억 달러(+3.2%) 기록
  - 7월은 여름 휴가시즌으로 인한 수주 비수기로 전반적으로 수주가 부진한 상황
- 2021년 7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코로나 상황 개선 지체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8.9% 감소한 153억 달러였으나, 하반기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발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

###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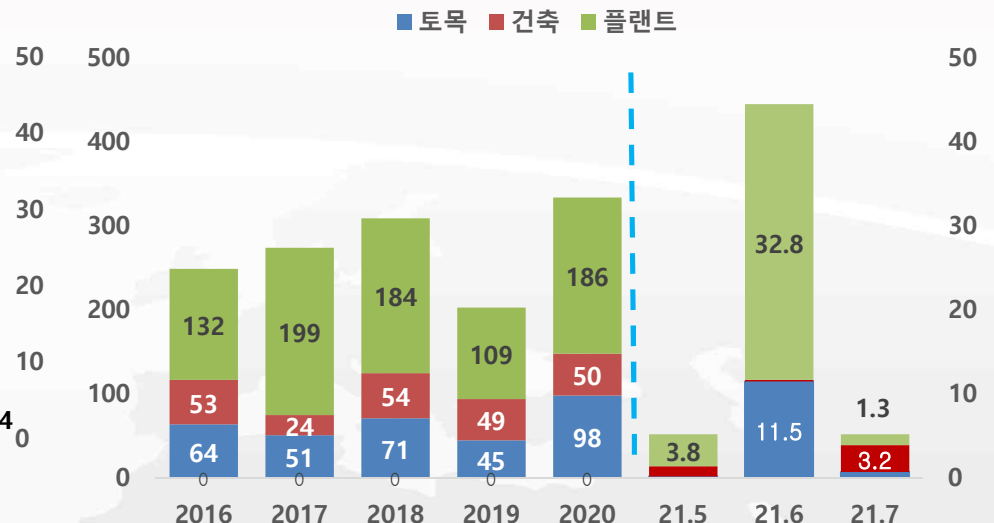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  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###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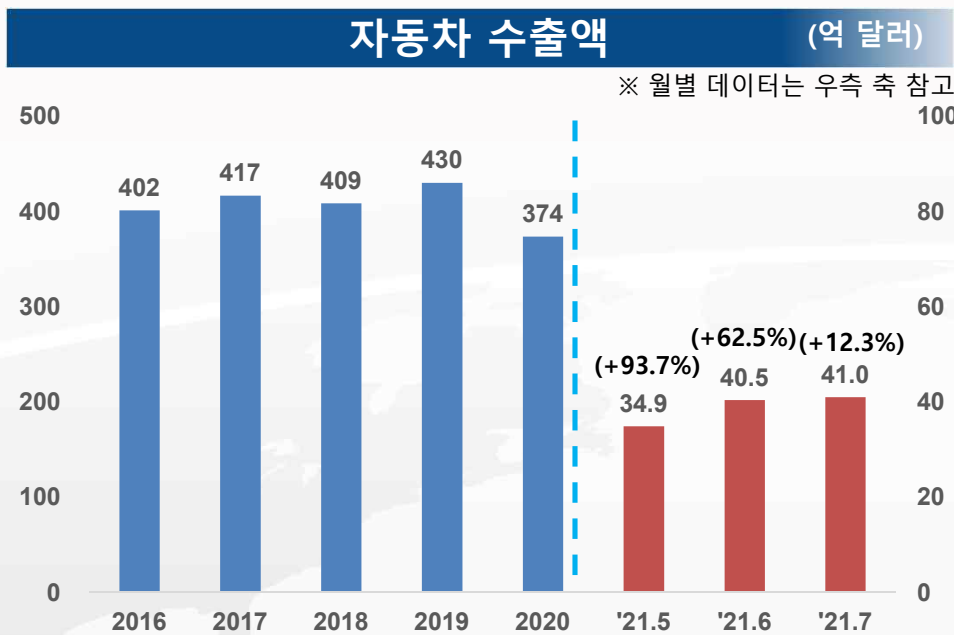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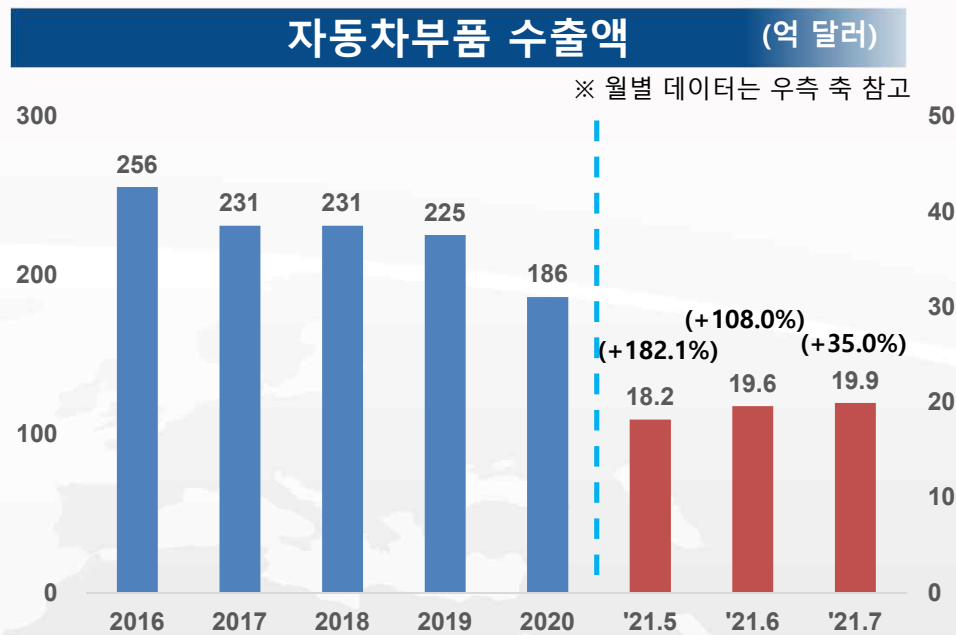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## 7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41억 달러, 19.9억 달러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2.3% 증가했으며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36.3% 증가**
  -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리스크가 여전하나,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이후 최대 수출액 달성
  - 전기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2.2%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9.8억 달러
  - \* 친환경 자동차 종류별 수출액 비율 : 전기·수소차(43.9%), 하이브리드(42.9%),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(13.3%)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5.0% 증가한 19.9억 달러 기록,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**
  -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
  - \* 대륙별로 북미(31.3%), 유럽(26.7%), 아시아(25.7%) 앞 수출 비중이 높고, 전년동월 대비 각각 30.0%, 42.2%, 20.3% 증가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 자료 : 무역협회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 자료 : 무역협회



# 반도체·디스플레이

##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38.8%, 34.9% 증가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8.8% 증가한 110.5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수요,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.8% 증가한 71.4억 달러 기록

\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1.1~2)3.0 → (4~6)3.8 → (7)4.1 (D램익스체인지)

•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 증가\*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5.8% 증가한 33.4억 달러 기록

\* 국내 파운드리: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\*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 : ('21.1)76.1 → (3)78.1 → (5)83.6 → (6)83.5 → (7)84.0 (한국은행)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4.9% 증가한 20.9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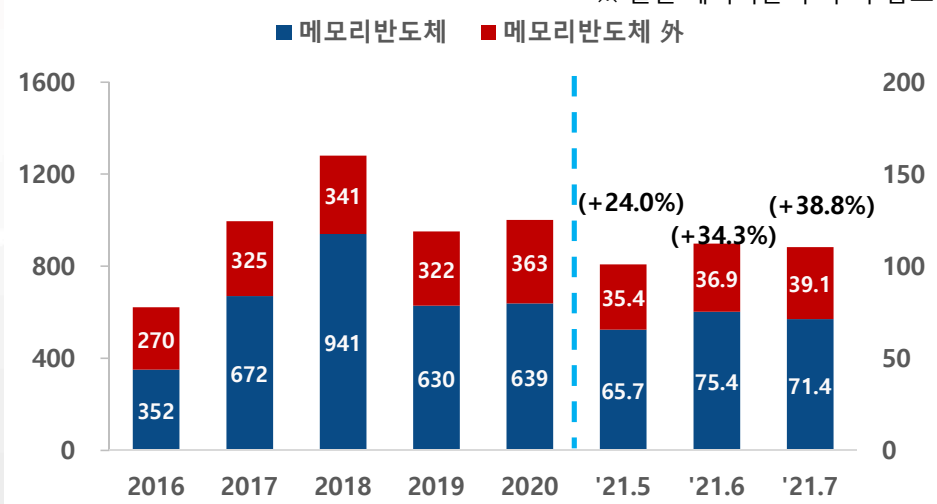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89.6% 증가한 12.2억 달러 기록

\* OLED 수출물가지수(2017.12=100) : ('21.1)61.7 → (3)54.6 → (5)51.2 → (6)51.1 → (7)52.2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LCD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.4% 감소한 5.2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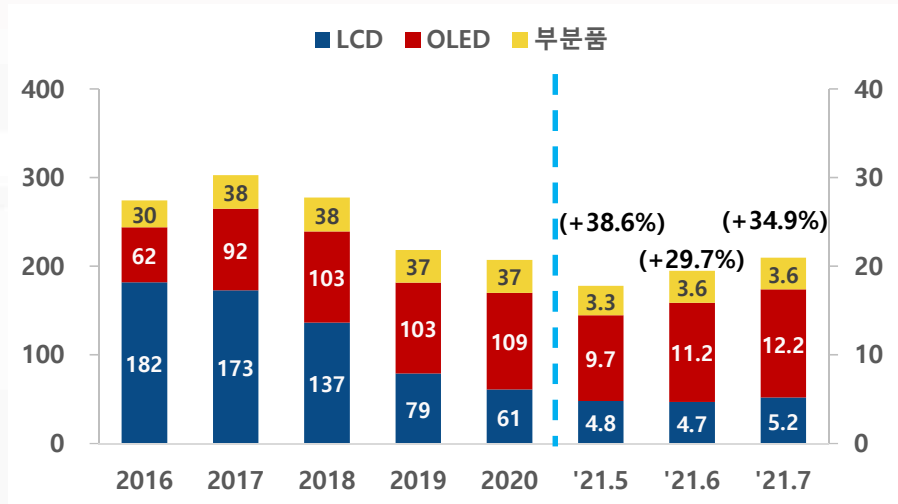
### 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### 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